

세계를 향한 계양전기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1977년 시작된 계양전기의 역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라는 의미를 담아 창업가 사명을 浬(열계), 洋(큰바다 양)으로 손수 작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계양전기는 거친파도와 싸우며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꿈을 향해 한걸음씩 정진해 나가고 있다.

계양전기는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전동공구산업을 고객과 함께 개척해온지 33년! 설계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자체설계기술 확보 활동과 PDM시스템, 외부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끊임없는 노력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형호 대표이사

◎계양전기?

산업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계양 전동공구!
일반인에게는 벌초할 때 사용하는 계양 예초기!
농번기에 일손을 덜어주는 계양 엔진제품!
승용차에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계양 시트모터!

이 모든 제품들을 순수 자체기술로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지정점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전동공구 시장의 중심인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에서 검증된 모터 품질력을 보유한 기업이 계양전기이다.

◎전동공구 시장 현황과 계양의 발걸음

내수경기의 침체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시장규모가 정체상태에 있으며, 수입품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양은 전국 7개 영업소, 320여개 대리점, 220여개 A/S지정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직영서비스센터를 7개소 운영하여 고객밀착영업 및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내수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견실한 중견기업이다.

DC MOTOR 사업부문에서는 주로 자동차용 SEAT MOTOR, WINDOW MOTOR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은 2004년 하반기부터 현대, 기아자동차의 대부분의 차종에 SEAT MOTOR를 수주하고 있으며, 점차 수주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수출에는 LEAR사에 SEAT MOTOR를, INTEVA사에 WINDOW MOTOR를 납품하고 있다. 엔진사업 부문에서는 예초기, 양수기, 비료살포기, 2-CYCLE ENGINE, 4-CYCLE ENGINE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용 농기계에 장착된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 확보를 위해 일본의 미스비시, 다이신, 마루야마 등, 엔진관련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엔진용용 상품을 판매중이다.

지금의 경영환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계양전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임직원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2010년은 신제품, 신시장을 만들어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어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올해의 경영방침을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으로 정하고 크게 3가지 실천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각화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충전공구의 개발확대,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산업용구 시장의 점유율 확대, 신규모터사업의 적극추진 등 미래성장의 구조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GLOBAL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하는 해외시장에서는 GLOBAL MAKER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GLOBAL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능/품질/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도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미래 성장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의 혁신을 위해 연구인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의 NEEDS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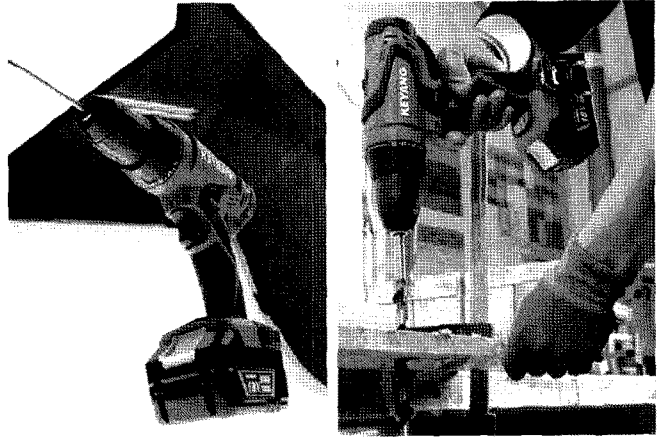
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새로운 NEEDS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제품의 출시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개발비 투자, 연구인력의 충원, 요소기술의 확보 등 R&D 역량의 혁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 세계를 향한 수출주력 제품개발에 집중

▶ 고성능 리튬이온 충전 해머드릴

고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전공구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 카드뮴 배터리에 비해 가볍고 힘과 수명이 뛰어나 전동공구의 새로운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계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고효율 전문가용 18V 해머드릴 드라이버는 힘과 수명, 작업성에서 우수하여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제품에 내장된 고효율 특수 모터는 자체설계기술과 제조기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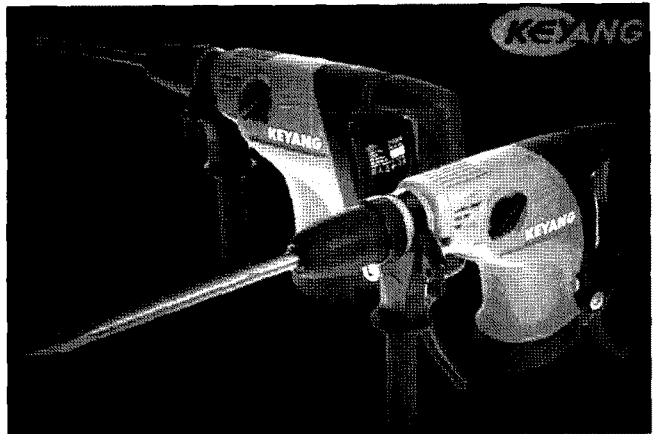


▲ 고성능 리튬이온 충전 해머드릴

▶ 유럽의 진동규제 장벽을 넘어선 5kg 파쇄해머드릴

유럽에서는 HAVS(Hand-Arm Vibration Syndrome)과 관련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제품의 진동량에 따라서 일일 사용 시간을 규제하므로, 전동공구의 유럽수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해머류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구로서 해머류가 제일 큰 Issue이다.

계양에서 이번에 신규로 개발한 KH-40MV 기종은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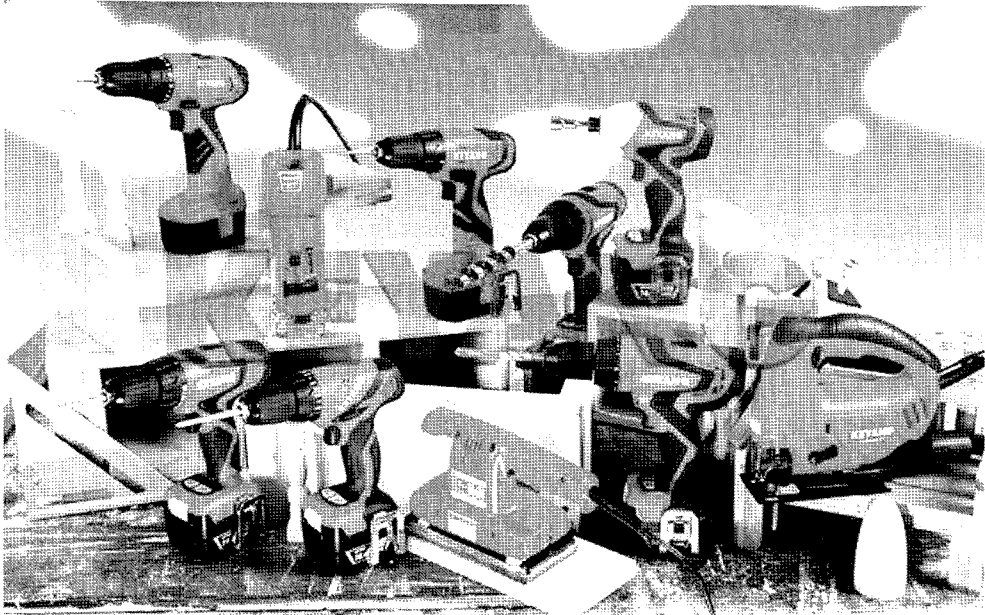


▲ 저진동 해머드릴

명 메이커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호평을 받고 있다. 저진동기술을 확보한 계양전기는 저진동 VCS(Multi Vibration Control System) 기술을 특허 등록해 기술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저진동 VCS 기술은 내부에 카운터 밸런스, 복합댐퍼, 댐퍼 등 3중으로 진동을 줄여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기술이다.

▶ 인테리어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DIY 공구개발

최근 공예, 공방 등 여가 활용과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직접 본인이 가구를 제작하려는 매니아들이 늘어나며 공구의 세트화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계양전기는 이런 매니아들을 위한 공구의 LINE-UP을 완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고를 준비하여 좀더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DIY 공구 LINE-UP

계양전기는 제품의 상품력을 바탕으로 수출의 활로를 찾고 있었으며, 곧 결실이 눈앞에 나타날것으로 전 임직원이 확신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벽면에 걸려있는 “잘팔리는 제품, 우리가 목숨걸고 만들겠습니다.”란 현수막의 문구처럼 목표를 달성하려는 굳은 의지가 넘쳐보였다.